

목포시,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 행보... 조선·해운업계 '주목'

해수부 공모사업 4건 중심
신기술·연구 집적화단지 구축
세계 최대규모 LBTS 개발 추진



목포 남향 친환경선박 연구인프라 조감도. /목포시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친환경선박'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친환경화 패러다임과 환경규제 강화는 조선·해운 분야에서 예외는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3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과 2050 Net-Zero 실현 발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산업동향에 발맞춰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연관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조선·해운 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약 1500억원 규모)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선박 신기술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목포

남향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적화 단지를 구축 중에 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전기 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이며,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기

추진 차도선'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운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목포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실증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 테스트베드(K-GTB)'는 작년 9월 목포소재 기업에서 용골거치식을 갖고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으며, 향후 해상실증 기법과 절차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중소형 여객선(요트)도 개발되고 있다. 수소연료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에 해상의 풍력과 태양광을 접목해 친환경선박의 고질적 문제였던 연료소모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규모(30MW급)의 전기추진시스템 육상시험설비인 LBTS (Land Based Test Site) 또한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이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나 크루즈, 구축함급 함정까지 다양한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국산화와 세계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 사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핵심시설이 5개동이 남향 교육연구지구에 들어설 예정인데, 2개동(충전시험동, 관제유지보수동)을 이미 준공하였고, 3개동(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 또한 작년 말 착공되어 오는 2025년 본 모습을 갖추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면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되어 산단 조성계획과 더불어 산단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산단 진입도로 4차선 개설 등 산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경북)=이상호 기자

대구시 신천 둔지 사계절 사색정원 조성

대구광역시시는 대봉교 200m 하류 신천 좌안 둔지에 사계절 사색(四色)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사색정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가지 색 노랑, 빨강, 보라, 흰색으로 표현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목본류 71종 591본, 초본류 72종 15516본을 4가지 색깔별 정원에 다르게 심어 사계절 다양한 색으로 꽃이 피고 지는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또 정원 곳곳에 색감 있는 담장과 의자를 설치한 쉼터, 능소화가 심어진 트렐리스 등이 있어 신천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진도군 우흥섭 부군수, 31년 공직 마무리

우흥섭 진도부군수가 명예퇴직하며 31년간의 공직생활을 지난달 30일 마무리했다.

우흥섭 부군수는 완도 출신으로 1994년 7급 공채로 완도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전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우흥섭 부군수는 퇴임 소감문을 통해 31년간 최선을 다해 일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면서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진도군 곁에서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 확대 출범

'저출생과 전쟁'을 진행 중인 경북도가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조직개편으로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정식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한다.

저출생극복본부에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인구 및 저출생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인다. 또한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부산시, 의료관광 유치 '본격화' 지난해 外人 환자 수 11.6% 늘어

부산경제진흥원과 설명회 가져
의료관광 중점 협력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만 29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주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입이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중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지난달 25일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 의료관광 유치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웰니스관광과 의료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교류할 기

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에게 ▲최신 정보 정보 습득 ▲상호네트워킹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 의료관광을 이끄는 기관을 선별해 전방위로 집중 홍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의료관광 중점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앞으로 중점 협력기관 분야별로 부산의료관광 공식 SNS 및 유관 기관 협력 채널에서 중점 기관 개별 소개 및 전방위로 홍보 할 계획이다. 또 진흥원은 몽골, 일본 등 타깃 국가 현지에서 의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광군,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5만㎡ 간척지에 3MW 규모로 추진

전남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후 2년에 걸쳐 도와 영광군, 마을주민이 합심한 결과 최근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월평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월평마을 앞 5만㎡ 면적의 간척지에 3MW 규모로 추진된다. 1단계로 올해까지 1MW 준공을 완료,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월평 사례는 현재 평균 60kW 수준 소규모 실증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최초 상용화 모델로, 농지 잠식



영농형 태양광단지.

도 없고 주민 수용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발전 수익을 토지소유자, 경작자 뿐만 아니라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마을 주민까지 모두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농촌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 베트남서 농특산품 홍보 관촉행사

'한국인의 특별한 맛' 주제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맛'이라는 주제로 영양군 농특산품 홍보 관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홍보를 시작한 '하노이 호안가임'은 베트남의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유동인구 주말 평균 5만여 명이 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영양군은 이번 행사에서 우수 농특산품들을 전시·홍보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시연하여 베트남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



영양군, 베트남 농특산품 홍보관촉 행사 사진.

다. 특히, 대표품목인 영양 고춧가루, 고추장은 최근 K-푸드 인기로 김치, 떡볶이, 두루치기 등의 다양한 재료로 사용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최우수 선정

금오공과대, 기술핵심기관

구미시가 '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에서 전국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

구미강소특구는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R&D 특구로, 올해로 사업 4년차를 맞이했다. 금오공과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공공기술이전·사업화·재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과학기술 기반 제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226억3300만원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3년간 성과로는 기술이전·출자를 통해 유망 우수기술을 수요기업에 매칭하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적인 특허권을 보유한 첨단기술 기업 설립을 맞춤 지원했다. 그 결과, 23년까지 연구소기업 30개사, 첨단기술기업 2개사를 설립했으며, 매출액 141억8000만원, 신규 고용 53명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구미(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